



# 커진 규모 알찬 전시로 세계포장 한눈에

## 한국 27개사 등 58개국 1800개사 참가

독일 뒤셀도르프 전시회의 한국대표부인 라인메ッセ(주)는 지난 11월 28일 오전 11시 서울 힐튼호텔 코랄룸에서 인터팩2008(interpack2008) 설명회를 개최했다. 독일 뒤셀도르프 국제포장전시회 인터팩2008 담당이사인 야브로놉스키(Mr. Jablonowski)가 새로워진 인터팩 2008에 대해 직접 소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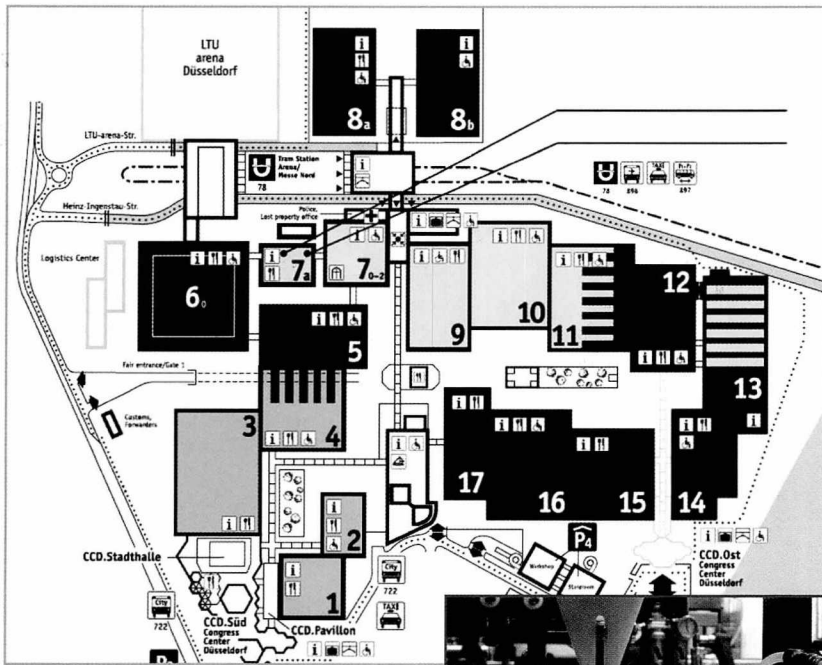
1958년 제 1회 전시회를 시작으로 현재 독일 뒤셀도르프에서 3년마다 개최되는 인터팩 전시회는 세계 5대 포장전시회 중 하나로 손꼽힌다. 특히 인터팩은 역사와 전통 그리고 규모와 질적인 면에서도 다른 전시회에 추종을 불허하는 세계 최대의 포장 전시회로 공인받고 있다.

오는 2008년 4월 24일부터 30일까지 7일간 개최되는 인터팩2008은 총 전시면적이 지난 2005년 때보다 8b관이 추가돼 약 15,000m<sup>2</sup>가 증가한 전체 19개 관에 약 265,000m<sup>2</sup>에 이르는 방대한 규모의 전시회가 될 것이다. 방문자도 세계 106개국으로부터 약 18만여명이 내방할 것으로 주최측은 예견하고 있다. 인터팩2008에는 58개국으로부터 약 1800개사가 참가할 예정이며 이 중 독일이 772개사다. 독일외 국가에서는 이탈리아 466개사, 프랑스 112개사, 네덜란드 112개사, 영국 106개사, 중국 100개사, 터키 97개사, 미국 67개사, 한국 27개사 등 1723개사가 참가한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7년 12월말 참가 신청을 마무리한 결과 총 27개사가 참가신청을 완료하고 현재 전시 준비 중에 있으며 한국관 참가업체는 가성팩, 한국뉴메텍, 리팩, 케이엠지, 선진에스엠, 디디에스엠, 에이치피엠글로벌, 산호기계, 자비스, 우정테크, 솔팩 등 11개사이고, 개별 참가업체는 삼환강업, 스카이소프트젤, 백천기계, 로닉스, 인트라이스, 부림월드, 한화폴리드리머, 필인터내셔널, 동신포, 뉴팩코리아, 팜텍코리아, 홍아기연, 세종과마텍, 카운텍, 대성자동차포장기계, 에스엠팩 등 16개 업체이다. 이번 전시회의 전시장 구성을 살펴보면 역시 포장기계류 전시가 주축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총 19홀 중 전시관 1-4관(오렌지색)은 당과 포장관련 전시관으



일시\_ 2008년 4월 24일 ~ 4월 30일  
 장소\_ 독일 뒤셀도르프 박람회장  
 홈페이지 www.interpack.com



총 19홀 중 전시관 1-4관(오렌지색)은 당과 포장관련 전시관으로 '달콤한 관'이다. 7, 9, 10, 11관(노란색)은 포장재 및 포장재 제조 전시관으로, 나머지 파란색 부분은 식품, 음료, 의약품, 화장품, 각종 소비재(식품제외) 및 산업용 기자재의 포장과정 및 포장기계 전시관으로 조성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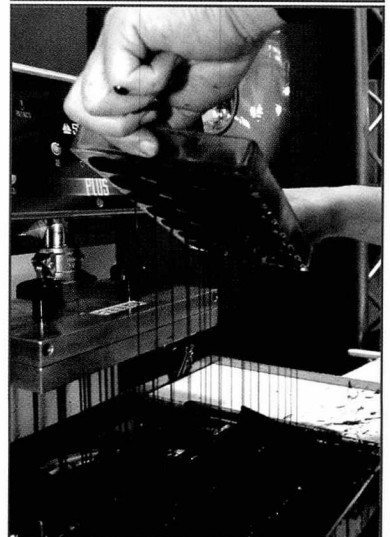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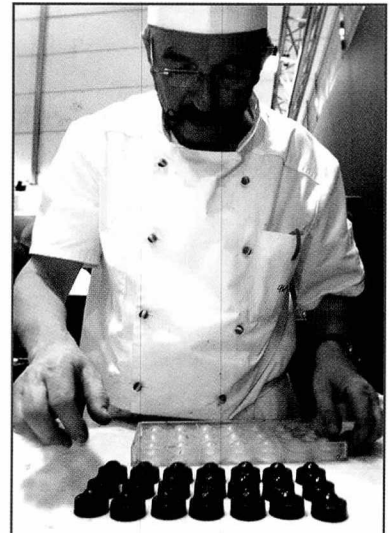


로 '달콤한 관'이다. 노란색 부분인 7, 9, 10, 11관은 포장재 및 포장재 제조 전시관으로, 나머지 파란색 부분은 식품, 음료, 의약품, 화장품, 각종 소비재(식품제외) 및 산업용 기자재의 포장과정 및 포장기계 전시관으로 조성된다. 뒤셀도르프 박람회사의 빌헬름 니더괴커 사장은 "인터팩2008의 전시컨셉은 시장의 변화에 잘 부응한다. 이는 오래전부터 참여해 온 전시사의 부스크기가 늘어난 것 뿐만 아니라 신규 참여하는 업체의 수를 보아도 분명히 알 수 있다"고 말했다.

### 1-4관, 달콤한 향기로 가득할 것

인터팩의 전시관을 둘러보는 사람이면 누구나 초콜릿과 오븐에서 갓 나온 와플의 달콤한 향기를 피해갈 수 없다. 향기를 따라가다 보면 문득 이들 식품을 포장하는 기계 쪽으로 와 있음을 깨닫는다. 2008년 4월 24일부터 30일까지의 인터팩 뒤셀도르프 박람회장 1-4관에서는 제과 및 장기보존 빵류를 생산하는 장비와 기계가 선을 보인다.

세계적으로 단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제과 제빵 제조 기계 및 장비의 수요를 끌어올리고 있다. 독일 기계공업협회의 식품가공 및 포장 연합의 추산에 따르면, 제과 제품의 생산 및 포장에 필요한 기계류(예비 부품 및 개별 부품 포함)의 세계 총 생산량은 22억 유로 이상이다. 이중 30% 정도가 독일에서 만들어진다. 독일의 총 생산액 6억 5천만 유로 중 2/3 정도는 제과 기계 및 장비이며 나머지 1/3이 이들을 위한 포장기계이다.





iF는 50년 이상 독일 하노버에 근거를 두고 활동해 왔다. 이 회사의 창립은 1953년 개최된 "우수 디자인 공산품 특별 전시회"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2001년에 iF는 국제 디자인 포럼이라는 사업 부문을 출범시켰다. iF 사는 다른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도 저명한 iF 디자인 상 시상과 관련한 업무를 추진해 왔다. 1953년 창사 이래 iF 디자인 상은 존경받을 만큼 뛰어난 디자인의 상징 역할을 해왔다.

### iF, 포장상 시상

iF, 즉 세계포럼디자인사는 제 1회 "iF 포장상"을 인터팩 2008에서 시상하기로 했다. 입상자들은 iF 레이블을 붙일 수 있게 되며, 우수한 디자인에는 iF금상을 수여한다. 금상은 최대 5명까지 받을 수 있다.

이 상은 포장 제조, 설계, 포장 개발, 포장재, 그래픽, 포장 기계 등 포장산업 전반에 걸쳐 진행되며, 분야는 판매용 포장, 수송용 포장, 포장 기계, 포장 재료, 그래픽 등이 있다. 관심있는 업체는 중복 참여가 가능하며 나온 지 3년이 되지 않은 포장만 출품할 수 있다.

출품된 제품들은 일련의 종합적인 판단 기준에 따라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심사 위원단이 디자인의 품질, 인체공학적 측면, 자재 선정 및 혁신의 정도 등을 집중적으로 검토한다. 시상식은 인터팩 2008 개막일인 2008년 4월 28일에 열리며, 방문객들은 박람회 기간인 4월 24일부터 4월 30일에 걸쳐 iF 레이블을 수여받은 모든 출품작을 관람할 수 있다.

홈페이지 [www.interpack.com](http://www.interpack.com)

인터팩전시회는 [www.interpack.com](http://www.interpack.com)을 통하여 방문 준비에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우선 양방향 3차원 전시관 배치도가 전시사의 부스를 알려주어 길 찾기가 수월하다. 특수 기능이 있어 내 필요에 따라 맞춤 전시사 및 제품 리스트를 만들어 PDA처럼 휴대할 수 있는 장비에 다운로드한 뒤 전시장으로 가져갈 수 있다. 입장권 예매도 가능하며, 1일권은 39유로(우편발송료 제외), 현장 매표소에서 구입하면 55유로다. 3일권은 예매시 89유로, 현장구매시 120유로다. 인터팩2008의 입장권이나 전시사 패스를 갖고 있으면 라인-루르 지역 대중교통망 구역내에서는 박람회장까지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 구역은 뒤셀도르프시 뿐만 아니라 인근 도시 및 지역까지 커버한다.

〈인터팩 성장추이〉

